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 하나님 앞으로
  - 시역과 행사 안내
  -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 예배기도 / 구은강 집사
  - 주님 가르치신 기도
- 말씀과 결단
  - 성경말씀
  - 여호수아 2:8-14
  - 리합의 결단은?
  -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 결단의 찬송
  - 찬송 357장 / 허락하신 새 땅에  
(통일찬송가 382장)
- 헌신과 나눔
  - 봉 헌 / 유덕하 집사, 구은강 집사
  -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 삶과 세상으로
  - \*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 \*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목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 금요찬양예배

8:00 pm

기도 : 박진성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출애굽기 20:1-20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 목상에세이

### 열혈 목사, 열혈 성도

故 옥한흠 목사는 '설교는 십자가와 같은 고통의 작업'이라고 말했다. 만약 설교가 목 사 본인의 생각을 채우는 일이라면, 목사에게 설교는 이토록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것 이다. 하지만 설교는 설교자가 깨달은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글로 쓰고 말로 선포하는 일이 지 않는가?

그래서일까? 주일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필자도 설교 준비 때문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 다. 설교 준비로 생기는 부담감과 예민함은 토요일이 되면 극에 달한다.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찾아오는거야!"하는 짜증도 부린다. 그런데 이랬던 필자가 올해 2~4월만큼은 매주 금 요일, 토요일을 학수고대 했다. 혹시 이 시기 필자가 주일에 있을 세 편의 설교를 모두 주초에 완성 했기 때문일까? 아니다. 사실은 드라마 '열혈사제' 때문이었다. 이 드라마 에는 검 사 박경선이라는 인물이 나온다. 그녀는 출세를 위해 불의와 타협 하는 검사였다. 하지만 성당 신부인 김해일과 만난 이후부터 조금씩 변해간다. 김 신부처럼 박 검사도 불의에 맞서 싸우기 시작하더니, 마지막회에서는 자신의 잘못된 과거에 대해 고백하고자 검찰 감찰부에 자진 출두까지 한다.

감찰청 입구에서 김 신부와 박 검사는 이런 대화를 나눈다. "하나님 말씀 대로 살아주셔 서 감사합니다." "그 길로 가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이 대화 속에는 세상이 한국의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바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 한다. 그것은 '이 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뜨겁게 살아가는 거룩한 본을 세상에 보여달라 '는 요청이다. 드라마 제목처럼 '열혈 목사' '열혈 성도'가 돼 달라는 바램이다. 그런데 세상의 이런 요청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부탁 이요, 명령이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목사들에게 바라는 '열혈 목사'는 자기의 욕심, 생각, 야망을 하나 님의 뜻이라고 강요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설교하는 열혈목사이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를 자신의 삶을 통해 이웃과 사회 에 증거하는 '열혈 목사'와 '열혈 성도'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여전히 남아 있는 드라마의 여운은 "임 목사 당신은 하나님의 뜻만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치는 '열혈 목사'가 맞습니까?"

- 임민성 목사 / 서부교회

### 한 주간의 기도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한숨에도 귀 기울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밝은 은혜와 그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는 어떤 일도 견뎌냅니다. 순수한 믿음의 영혼으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MISSION PASTOR 정종렬 목사  
CHILDREN'S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YOUTH MINISTER SAGAR 전도사



새 영의 근원이 되시기를  
 "그러나 너에게서 나오리라."  
 영의 근원 23년

## 삼과 신앙

###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었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마 26:40-41)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열어 주는 영적 호흡이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겠다는 보장이 약속으로 주어진, 복의 통로이기도 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창문을 열어 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창문을 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요 14:14). 그런 점에서 결코 탁상공론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응답을 얻는 실제적 경험이다.

언젠가 미국 신문에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실린 적이 있었다. 내용은 어느 돈 많은 구두쇠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관한 것이었다. 그 노인이 죽게 된 원인은 놀랍게도 영양실조였다. 돈이 많은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전혀 돈을 쓸 줄 모르는 구두쇠였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그들은 하나님께 보장된 기도의 창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풍성한 삶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할까?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기도하셨던 갓세마네에서 예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잠에 빠져 버리고 말았다. 예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지적하셨다. 그 속에 담긴 중심적 의미는, **깨어 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깨어 있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그래고레오'인데, '깨어 있다' '지켜보다' '방심하지 않다' 등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히브리어 '샤카드'는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깨어 있음(시 127:1)을 뜻한다. 그런 점에서 '깨어 있음'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긴박한 사태를 주의 깊게 바라보는 자세를 뜻한다. 곧 '깨어 있음'은 앞으로 닥칠 위기를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다. 기도는 깨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자신의 삶이 위기 속에 있음을 직시하면서 오직 기도만으로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응답 받는 기도의 조건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외의 것들을 의존해서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없다. 그런 외식적이고 중언부언의 기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과는 거리가 멀다.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절대 순종**이다.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마 26:33, 35)라고 장담했으나, 그것은 사실 자신의 의지에 근거한 자만이였다. 자신에 의존해 기도의 뒷받침이 빠진 베드로의 확신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무참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기도의 응답은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근거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 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창문을 열 수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있는 응답의 창문을 곧바로 활짝 열어 주신다. 지금은 풍요의 시대에 영적으로 고갈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때이다.

권혁승 교수 / 서울신학대학교

##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시 역 / 행 사

7월은 복음의 증언된 삶을 사는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삶을 살도록 합니다.

1. 금주는 **만남과 나눔**의 주간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과 기도로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 **하반기 시작**: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간구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더 풍성한 남은 한 해가 되도록 새벽집회와 기도운동에 참여합니다!
3. **오늘부터 주일성경공부 여름학기가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의 7 가지 기적: 장영현 전도사 / 성경인물: 고순제 전도사 / 그림으로 표현하는 성경묵상: 정홍렬 목사
4. **방학**: 자녀들이 시간을 지혜롭고 활용하며, 방학을 보람 되게 보내도록 관심과 격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 유초등부 교육전도사/교사 청빙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6. 교우와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우 동정 : 최선윤/윤정 (한국 방문 중)

♥생일 축하♥ 오정은(7/14) 홍현근(7/18) 구은강 (7/28)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축복된 교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 기 도 제 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논)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주일예배기도	7/7	7/14	7/21	7/28
	구은강집사	정홍렬목사	오정은집사	최내권집사
금요일예배기도	7/12	7/19	7/26	8/2
	박진성집사	최내권집사	구 민 집사	최선윤집사
주일헌금위원	7/7	7/14	7/21	7/28
	유덕하집사/구은강집사	김훈태집사/유동숙집사		
주일안내위원	7월			
	최내권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건강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운 헌신과 수고 / 여호수아 1:10-18**

그 어떤 차이점도 극복하고 교회를 하나로 묶는 공통점은 지연, 학연, 공통된 목적이거나 취미가 아닌,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이스라엘을 위해 앞장서 요단을 건너며 정복 전쟁의 최선봉에 섰던 르우벤, 갓과 므낫세 지파처럼, 우리 역시 교회와 형제들을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자신의 일처럼 형제자매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쓰러진 형제자매를 일으키며, 상처입은 교우를 위로하며, 더욱 아름답고 든든한 공동체를 세웁시다.

**라합의 결단은? / 여호수아 2:8-14**

이스라엘과는 연관이 없던 이방여인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결단한 결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첫째, 먼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둘째, 희생과 대가가 따릅니다.

셋째,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결단의 여인 라합처럼, 결단해야 할 것은 결단하고 그 어떤 희생과 대가도 감수하며 실행합시다.

**라합의 결단은? / 여호수아 2:8-14**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는 무관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했고 그 결단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인생을 살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 되는 영광까지 얻었습니다. 이러한 라합의 결단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결단을 하기에 앞서 먼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보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소문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라합은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영적분별력이 있었기에 라합은 자신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편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도 바른 정보를 취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위한 참 정보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음성을 깨닫는 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지 알아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안에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둘째,** 결단에는 **희생과 대가**가 따릅니다. 만약에 정담꾼들을 숨겨준 사실이 발각했다면, 라합은 생명마저도 잃었을지 모릅니다.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후에, 이 결단을 위해 어떠한 위험이나 희생도 감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 버려야 할 옛 모습이 있습니다. 라합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자신의 모든 과거였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고 살던 여리고를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버려야 할 여리고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것은 곧 무너져 없어져 버릴 여리고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셋째,** 결단을 했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적으로 **매진**해야 합니다. 라합은 자신의 결단에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역사인 가나안 정복 전쟁에 끝까지 동참하였습니다. 그 결과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으로 남고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속한 살몬과의 결혼을 통하여 당당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합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결단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매진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결단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모든 것을 걸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라합은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리 돼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결단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은 후에는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한 것을 이루기 위해 그 어떤 희생과 대가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결단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네 영이 장로 될 것이 내가 번사에 잡히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도라”

#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치유, 회복, 나눔

July 7, 2019

##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 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2019년 7월 7일

5-27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달  
만남과 나눔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포화고 있을 때  
안타치 못할 때  
어 허니만 가만세로



당신은 약할지라도  
당신 안의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